

# 남원시, 국립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박차

이환주 시장, 국회 방문  
보건복지위·법사위 위원 설득  
전북도 차원 적극 지원 요청도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2022년 개교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원활히 개교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이 시장 등은 최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신경민 국회의원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면담하고 법률(안)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앞서 김중규 부시장도 전북도를 방문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설립부지 예산에 대한 대비



이환주(오른쪽 두번째) 남원시장이 국회를 찾아 이명수(왼쪽 두번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설득했다. <남원시 제공>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말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대학원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허

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실무팀이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은 옛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낙후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관련 법률 통과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전북 25개 학교 교가 친일인물이 작사·작곡”

군가풍·엔카풍도 수두룩...도교육청, 친일 교가 개선작업

전북 지역 학교 25곳이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모든 초·중·고교 교가를 분석한 결과 25개 학교가 친일인물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교가에 일제 잔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0곳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성태와 이흥렬이 각각 8곳, 김동진이 6곳, 현제명이 2곳,

김가수가 1곳의 교가를 작사 혹은 작곡했다. 친일 작곡가 제자들이 만든 교가도 적지 않고, 1950년대 이전 개교한 학교 중에 일본 군가풍, 엔카풍 교가도 상당하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일 교가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천년 먹을거리 기반 구축 농생명식품산업 발전 투자 ‘올인’

군, 식품산업 비전·전략 모색

고창군이 천년 먹을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농생명식품산업에 집중투자한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의 농업·농촌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농업 등의 비전과 전략,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농민과 함께 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사람중심의 안전 농식품산업 발전, 여유롭고 풍요의 농업경

영 조성, 복지농촌 구현, 상호공존 농정 거버넌스 구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내륙해양 자연환경, 풍부한 농산물 자원보유, 지역특화 품목의 성장 잠재력,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잇점을 활용한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장점을 살려 고창군이 한반도 농생명 수도로의 도약을 시작하려 한다”며 “정부 부처, 지역 정치권, 군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계획이 자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고창군은 최근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풍성한 무대’

올해 ‘다담’·‘달리는 국악무대’ 등 113차례 공연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올해 ‘다담’, ‘달리는 국악무대’, ‘상설공연’ 등 8개 프로그램에 113차례 공연을 펼친다.

다담은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내달부터 11월까지 9차례 열린다.

달리는 국악무대는 문화 소외지역과 관광지를 찾아가 다양한 우리 음악을 선사하는 것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될다.

상설공연은 어린이를 위한 국악, 우수예수가 초청공연, 판소리 공연 등 서로 다른 4개의 주제로 토요일 밤을 장

식하는 자리다. 29차례 무대에 올린다.

관광철에 집중적으로 여는 ‘광한루원 음악회’, 우수한 장극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대한민국 장극축제’, 일반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공연 ‘남원풍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이 밖에도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을 초청해 국악을 가르쳐주는 ‘즐거움 국악산책’, 학교를 찾아가 국악 체험기회를 주는 ‘국악세상’ 등의 체험 및 교육사업도 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73억원 투입 제방축조·호안 보강...편입토지 보상협의도

정읍시가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73억원을 투입,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용산천 1470m 구간에 제방을 쌓고 호안(護岸)을 보강한다.

또 배수암거(排水暗渠)와 배수통관 6개소와 종배수관 8개소, 용배수로, 취입보 등을 재설치하고 1만4096㎡를 포함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 준공된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시행하고 정읍시가 보상업무를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184필지 10만5831㎡로,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다.

시는 오는 3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 4월 중 개별적으로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김인태 부시장은 “토지 소유자 등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상 다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수리·수문 시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올 상반기 재정 집행 3834억원

군산시는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안(55.5%)보다 높은 63.0%로 설정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갖고 올해 대상액 6088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383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신속집행 효과가 지역경제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희망근로 및 노인 일자리사업,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중점 관리해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및 대규모 사업 중심의 집행

를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매월 재정 신속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이승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신속집행 등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7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